

# 해남 절임배추 '인기'...간편한 김장 문화 자리매김

김장 소규모 간략화...주문 쇠도 전국 배추 재배량 26% 34만톤 생산 2023년 7백여농가 매출 930억원 해남미소·개별농가 직거래 주문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청정해남의 절임배추가 인기 상승가를 달리고 있다.

절임배추는 김장을 준비할 때 가장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으로 꼽히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없이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어 최근 김장 문화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김장의 규모가 소규모로 바뀌고 간략해짐에 따라 편리한 절임배추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주문이 몰리고 있다.

명품배추로 인정받는 해남배추를 이용해 만든 해남절임배추는 김장 시장의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국 배추 재배량의 26%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인 4257ha 면적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 올해 생산량은 34만여톤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20% 가량이 관내 업체에서 절임 배추로 가공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 절임배추는 지난해 관내 700여 농가에서 248만여박스(20kg 기준)를 판매, 93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남 북평면에서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는 김광수 농가는 "한번 절임배추를 사용해본 가정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 때문에 반드시 김장에 절임배추를 사용하게 된다"며 "요즘 김장하는 방법을 몰라 김장을 포기한다는 김포족들이 많아

진다는데 편리한 절임배추를 사용해 보면 절대 김장을 포기할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남절임배추의 인기는 원재료인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데서 출발하고 있다.

해남절임배추는 70~90일 이상 충분히 키워 2.5kg 이상 결구가 잘된 해남 배추만을 사용해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 3~4차례에 걸쳐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 후 배달되므로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다. 배추 속이 짙고, 절임을 해도 달고 아삭한 배추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김장을 담가 놓아도 쉽게 물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배추 수확시기가 다소 늦어지면서 절임배추의 출하도 지난 20일 부

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속이 짙한 해남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적기는 김치의 날인 12월 초까지로 수도권 김장 시기가 끝나면 남부지방의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해남배추의 인기는 초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절임배추는 해남군 직영쇼핑몰 해남미소나 개별 농가 직거래 등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배송일을 지정하면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고품질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절임배추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남배추의 높은 인기에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생산기준 준수 등을 꼼꼼히 살펴 절임배추를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상시 운영 완도해양치유센터, 12월8일까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재빈)이 오는 12월 8일까지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해 해양치유센터 이용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오감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주요 프로그램은 △해변 싱잉볼 명상 △해변 노르딕워킹 △항기 교실 △공예 교실 △요리 교실 등이다.

프로그램은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기후치유 소인 6000원, 성인 1만원, 문화치유는 소인·대인 2만원이다.

참여 방법은 매주 목·금·토요일에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061-550-7631)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재빈 이사장은 "해양기후·문화치유 프로그램이 센터 이용객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해양치유 저변 확대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명 기자**

신안군, 대한민국 분재 대전 성황 12월부터 겨울꽃 축제

신안군이 주최하고 한국분재협회가 주관한 2024 대한민국 분재 대전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1004점 분재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대전은 50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역대 분재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들의 대거 전시돼 동호인들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대전이 열린 신안군 1004점 분재정원은 국내외 분재인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한편 신안군은 이번 대전이 열린 1004점 분재공원에서 '2024 섬 겨울꽃 축제'를 오는 12월 12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신안=홍일갑 기자**

쌀가루 자립형 소비 모델 구축 진도군, 지역특화단지 육성

진도군은 농촌진흥청의 '2025년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구축 사업은 가루 쌀과 가공 쌀 생산단지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쌀가루 원료곡을 활용해 차별화된 가공 제품을 개발해 지역 특화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가공용 쌀 전문 제분 시설, 건조·저장·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가공 제품 개발, 상품화와 교육·자문 등의 지원으로 쌀가루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사업 대상은 쌀가루 가공 소비가 가능한 농업법인, 지역 농협이며 진도군은 가루 쌀 원료곡 생산단지과 연계가 가능하고 자체 소비처 확보가 가능한 사업대상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최근 농가의 관심도가 높아진 가루 쌀을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며 "이번 공모사업으로 가루 쌀의 저장·제분·유통 등 종합 거점 단지의 모델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오늘 올라퍼 엘리아슨 작품 공개 신안군 도초도 대지의 문화시설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작품 숨결의 지구(Breathig earth sphere)가 신안군 도초도 대지의 문화시설에서 25일 대중에 공개된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대표 정적인 1점 1무지업 중 세계적 예술가가 참여하는 첫 번째 작품인 올라퍼 엘리아슨의 숨결의 지구는 최초 계획에서 설치까지 6년이 걸렸다. 사업비는 47억원이 투입됐다.

작품은 직경 8m의 공 모양 구조물이다. 입구는 어두운 동굴처럼 만들었다.

어두운 통로를 통과하면 작품의 내부와 맞닥뜨린다. 내부에는 세계 3대 용암석 타일 산지 중 이탈리아산 용암석 타일을 사용했다.

붉은색과 녹색이 정교하게 배치돼 찬란한 햇빛을 반사하며 입체감을 연출하고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올라퍼 엘리아슨은 "인간은 지구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지구는 인간이 없어도 살 수 있다"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지구의 잘나일 뿐이다. 지구를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자연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라퍼 엘리아슨은 1997년부터 설치,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2003년 제50회 베니스 비엔날레 덴마크관 대표작가 참여, 런던 테이트 모던 터빈 홀 날씨 프로젝트 설치, 2023년 일본 황실로부터 프리미엄 임페리얼 상을 수상했다.

유엔개발계획(UNDP) 굿월 기후 행동 친선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대지의 문화시설(숨결의 지구) 관람객 편의를 위해 공용버스 경유 노선을 신설하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신안군은 대지 문화시설이 위치한 도초도 수국정원을 경유하는 공용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지난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여객선이 도착하는비금가산선착장에서 도초 수국정원을 경유, 도초면까지 가는 간선버스는 1일 5회(오전 9시40분·오후 1시10분·2시40분·3시40분·4시40분), 도초 화도선착장에서 수국정원까지는 지선 버스는 1일 4회(오전 9시·11시30분·오후 1시40분·3시) 운행한다. **신안=홍일갑 기자**



26일까지 강진서 진행되는 '전국대학배드민턴연맹전'에 전국 대학 선수 400여명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고 있다. **강진군 제공**

## 전국대학배드민턴연맹전 강진서 열띤 승부

2024 전국대학배드민턴연맹전이 26일까지 강진군 제2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고 전남도배드민턴협회, 강진군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며 대한배드민턴협회, 강진군체육회가 후원한다.

대회에는 전국 대학 선수 약 4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같고닮은 실력을 마음껏 펼친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군민들에게 대학부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으로써의 배드민턴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 증진은 물론 남도답사 1번지

강진, 강진반값여행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이 경기가 없는 날에는 강진만 생태공원, 다산초당, 가우도, 식당 등 관내 여러 관광지에 방문할 수 있도록 군은 적극 안내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건전한 스포츠정신 아래 부상 없이 기량을 맘껏 발휘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 해남군,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 운영

한파특보시 비상근무

해남군은 올 겨울 이상기후에 따른 기습 한파가 예고됨에 따라 오는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한파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대책기간 동안 한파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대설·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상황관리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한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 재해취약 계층에 이불 200개를 배부했으며 한파 쉼터 573개소, 임시주거 시설 120개소에 대한 난방기와 안내판

등을 점검했다.

폭설시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작년부터 임대하여 운용 중인 15톤 덩크트럭 2대와 자체 보유 중인 살포기 등 제설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친환경 제설제 268톤과 모래 200㎥를 확보했다.

제설이 어려운 송지면 갈두재와 마산면 뚜드려재, 북일면 오심재에는 원격으로 염수를 살포할 수 있는 염수 분사장치를 활용해 제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남읍 코아루, 한들어린이집 경사로 2개소에 스마트 도로열선을 신규로 설치했다. 도로열선은 적설 및 노면 결빙이 발생하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눈을 녹이게 된다.

올해는 마을 앞 소규모 제설을 위해 읍면에 25kg 포대 제설제를 배포하여 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비상시 트랙터 보유자를 대상으로 마을제설반을 구성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수도 동파 대비 긴급복구반을 운영하며 제설제 253톤과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총 754세트를 보관 중이다. 올 12월 중 응급구호세트 130개를 추가 구입해 읍면에 일부 배부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 날지 않기로, 도로 살얼음에 대비해 서행운전하고 안전거리 확보,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 예방에 주의하기 등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